

문화전당 하늘마당 주말이면 쓰레기 몸살

200~300kg 쌓여 평일의 3배 붐·가을 행사철엔 1t 이상도 시민 휴식 명소 악취 명들어 쓰레기 가져가는 의식 필요 쓰레기 처리 주체 놓고 전당-동구청 미묘한 갈등도



광주시 동구청 환경미화원이 지난 주말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하늘마당 앞에서 이용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24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하늘마당'에는 주말을 맞아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맥(치킨+맥주) 등을 즐기고 있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자 하늘마당 주변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다.

일부 이용객은 먹다 남은 음식 등 쓰레기를 가지고 갔지만, 대다수 시민은 하늘마당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공원 한 켠에 버리는 모습이었다.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종류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부터 피자 포장상자, 빈 캔, 휴지, 음식물 찌꺼기 등 다양했다. 쓰레기가 담긴 봉투도 대부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였다.

서울에서 휴가차 고향 광주에 왔다는 전영범(34)씨는 "하늘마당이 명소라는 소문을 듣고 가족과 찾아 왔는데 냄새나는 쓰레기더미가 곳곳에 있어 나들이 기분을 망쳤다"며 "좋은 장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듯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심 속 피크닉" 명소를 자리잡은 문화전당 하늘마당이 이용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하늘마당을 관리하는 문화전당과 거리 청소소를 담당하는 동구청 사이에 쓰레기 처리 주체를 놓고 미묘한 갈등마저 감지되고 있다.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 동

구 등에 따르면 매주 월요일이면 문화전당 일대에서 주말 새 발생한 쓰레기는 100ℓ 종량제 봉투 40~50개 분량에 달한다. 무게로 따져보면 하루 200~300kg 수준이며, 봄·가을 나들이철이나 행사가 있을 땐 1t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게 전당측 설명이다.

평일 기준 100ℓ 종량제 봉투 15~20개가 수거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엔 평일보다 세 배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당부지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당이 위탁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과 광주시 조례에 따라 1일 생활폐기물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매각·소각하거나 위탁 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화전당 내 하늘공원(2만6000여㎡) 이용객들이 문화전당 인근 도로변이

나 인도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다. 쓰레기 규모만 수백 kg에 이를 것이라는 게 동구청의 설명이다.

일단 문화전당측은 인도와 차도는 동구청 관할인 만큼 전당 주변 쓰레기는 동구청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청도 일단 주민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위탁 업체를 통해 쓰레기 처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 내부에선 인도·차도에 놓여 있더라도 발생한 곳은 하늘마당이기 때문에 전당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하며, 특히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무단 투기로 간주해 과태료 처분을 내야 한다"면서도 "일단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계도만 하고 있으며, 하늘마당 이용객 중

가 따른 쓰레기 수거 업무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동구와 이용객들은 편의와 위생을 위해 문화전당이 하늘마당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당 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전당측은 지난 2017년까지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철거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시설관리과 관계자는 "하늘마당 쓰레기에 대해서는 동구청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광주시민들이 집이나 거리 응원전 때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것처럼, 하늘마당 이용시에도 자신의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살인 부른 '담배꽂초 시비'

광산경찰, 꽂초 투기 갈등 속 러시아인 살해 태국인 3명 검거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담배꽂초 시비가 붙어 러시아인이 흥기에 질려 사망했다.

광주광산경찰은 29일 "러시아인 A(22)씨를 흥기로 살해한 태국인 B(33)씨 등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인들은 불법체류자이며, 숨진 러시아인은 난민 신청자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8일 밤 9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하남성심병원 인근에서 A씨를 폭행한 뒤 흥기로 질러 숨지게 했다.

이들의 다툼은 사흘전인 지난 25일 원룸 건물 3층에 머물던 B씨 등이 길을 걷

던 러시아인 A씨 일행 쪽으로 담배꽂초를 던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 당일 A씨 일행은 길에서 마주친 B씨를 폭행했고, B씨도 휴대전화로 태국인 C(32)씨 등 2명을 불러냈다. 흥기와 둔기 등을 챙겨 현장에 합류한 C씨 등은 B씨와 함께 A씨 등 러시아인 2명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인 C씨의 흥기에 일복구가 찢린 러시아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간 C씨 등 2명을 김해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천시 일가족 탄 자동차 추락 4명 사상

순천에서 일가족이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옆 풀숲으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9일 오후 1시 15분께 순천시 별량면 도로에서 A(73)씨가 몰던 SUV가 길을 벗어나 10여m 아래 풀숲으로 떨어졌다.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두 누나(90·79세)가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조수석에 탄 아내(65)는 중상환자로 분류돼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바다 경치를 보려고 함께 길을 나섰다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자린 뒤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법원 "직장 갑질 논란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해임 정당"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립도서관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허현국 부장판사)는 29일 전 광주시립도서관 과장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직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부당한 대우를 하고 민원인들로부터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부하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자신이 앓는 우울증 탓으로 돌리며 진정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해 지방공무원법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광주시청 일부 직원은 A씨가 수년간 욕설과 갑질을 했다며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A씨의 비위 정도와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붕괴사고 클럽 복층 구조물 하중 적정수준의 11% 불과

수사본부 중간 브리핑 관련 공무원 16명 조사 조례 제정 유착 의혹도 수사

광주 '코오테 어글리' 클럽 내 붕괴된 불법 구조물의 한계 하중은 적정 수준의 11%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클럽 안전조사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분석 결과, 불법 증축된 구조물의 한계 하중은 1㎡당 35.5kg으로 적정수준인 300

kg의 11.2%였다.

수사본부는 "불법 구조물 전체 면적은 34.42㎡로 버틸 수 있는 하중은 1200kg 정도였으며, 사고당시 40여 명의 손님 구조물 위에서 발을 구른 점을 감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증축에 들어간 철골자재 역시 가로 200mm, 세로 100mm, 두께 4.5mm 이상의 사각파이프를 사용해야 했지만 클럽측은 가로 100mm, 세로 50mm, 두께 1.4mm 파이프 두개를 이어 붙이는 시공법을 선택했

고, 사용된 사각 파이프도 두께가 1.4mm에 불과해 용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전·현직 업무 5명과 직원 2명, 안전점검업체 직원 2명, 전 건물관리인 1명, 불법 증축업자 1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춤 허용 업소' 지정 과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무원 1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혜 의혹 수사 등을 확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0대 여성 아파트 추락사 안고 있던 아기는 무사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께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3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했고, 발견 당시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길고양이에게 밥 줬다며...병원 주차장에 음식쓰레기 투척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갯맘' 여성 환자들이

에게 앙심을 품고, 병원 주차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 던진 '다둥이 아빠'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행.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38)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윤암동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 "옛다 고양이 밥"이라고 외치며 들고온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던

졌다.

○초등학교 등 어린자녀 6명을 키우고 있는 A씨는 평소 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들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데, (갯맘들이 주는)밥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모여 들어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전대 융복합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비밀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무안군 동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경관 최고 땅 48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표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에 적합, 휴게소도 적합, 32억

펜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화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표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 4959㎡ 펜션적합 교환가능 4억5천
- 남구 서동 상가 137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표집 땅(담)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윤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내 다용도 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물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물 613㎡ 안입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월 510.14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물 712㎡ 1층 기계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신안군 암태면 부두에서 배로 10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추기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중 주거지 담 4413㎡ 축합 2억4천 주위에 좋은 4억4천
- 담양군 대덕면 잠중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 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호텔·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장성토지매매!!

- 4층,30평 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 나대지
- 면 적 : 3,646㎡ (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곰의산책길, 오솔길 우측: 대형블루베리농장, 환상의 캠핑장, 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임야

바로 삽니다

문의. 010-6834-7400